"전력분석팀 강화"

허정무 국가대표감독 새구상

수석 코치에 정해성씨 내정

"시간이 부족한 만큼 코칭스태프 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분석 전담요원에 대한 강화도 필수적이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의 대업을 떠맡은 허정무(52·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정해성(49) 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을 수석코치로 점찍은 가운데 나머지 코칭스태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허 감독은 9일 "현재 영국에서 축구연수를 하고 있는 정해성 감독을 수석코치로 내정했다"며 "정 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기술위원회와 코칭스태프 구성에 대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허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코칭스태프 체제는 수석코치-GK코치-코치-피지컬 트레이너-전력분석담당 등 5명이다.

허 감독은 정해성 감독이 귀국하면 GK코치와 코치 내정자를 확정하고 축구협회에 피지컬 트레이너의 영입도 요청한다는 생각이다.

허 감독이 내심 마음에 두고 있는 GK 코치는 김현태 제주 수석코치다.

허 감독은 정 감독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정 감독은 김현태 코치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여서 코칭스태프 사이에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허 감독은 코칭스태프의 확정뿐 아니라 대표팀만 전담해 줄 수 있는 전력분석 요원의 확충도 원하고 있다. 현재 신승순(35) 축구협회 기술분석관 혼자서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전력분석을 도맡고 있는 만큼 신 분석관이 대표팀에만 전력을 쏟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허 감독은 내달 중 대표팀 임시소집 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감독이 먼저 얘기하면 일이 꼬일 수 있고 프로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며 "자칫 감독과 프로팀의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코칭스태프 선정에 힘을 쏟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주성 VS 서장훈

9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전주 KCC 경기에서 동부 김주성이 KCC 서장훈의 수비를 피해 드리블을 하고 있다. KCC가 65-5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프로배구 삼성화재와 상무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용병 안젤코가 강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복귀전은?

23일 에버턴전 될 듯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돌아온다.

빠르면 오는 23일 부상을 털고 그라운드에 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는 지난 8일(한국시간) 구단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의 복귀가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맨유는 "오랜 시간 재활에 힘을 쏟은 박지성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 터널을 지난 박지성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은 현재 1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몇 주 안에 돌아올 것"이라면서 "아마 2주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했다.

퍼거슨 감독의 예상을 바탕으로 맨유 구단은 박지성이 빠르면 오는 23일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릴 정규리그 에버턴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기현 후반 교체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설기현(28·풀럼)이 후반 교체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 없이 물러났다.

설기현은 9일 오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다 0-2로 끌려가던 후반 29분 대니 머피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달 26일 블랙번 로버스와 14라운드부터 3경기 연속 교체 투입된 설기현은 인저리타임까지 20분 가까이 뛰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풀럼은 0-3으로 완패했다.

한국 女핸드볼 폴란드 제압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이 폴란드를 꺾고 제18회 세계선수권대회 8강행 희망을 살렸다.

한국 대표팀은 9일 오전 프랑스 디종에서 열린 대회 본선 리그 2조 2차전에서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폴란드에 37-33, 4점 차 완승을 거뒀다.

폴란드와 함께 조 공동 최하위였던 한국은 이로써 본선 첫 승리를 거두며 4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10일 스페인, 12일 헝가리와 경기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4위까지 오르는 8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홍만, 밴너에 또 판정패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격투기 강호 제롬르 밴너(35·프랑스)에게 또 판정패하며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최홍만은 지난 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요코하마아레나에서 열린 '2007 K-1 월드 그랑프리 대회 파이널' 밴너와 8강 토너먼트에서 마지막 3라운드까지 버텼지만 심판 전원일치(29-30, 28-30, 29-30)로 판정패를 당했다.

이로써 최홍만은 지난 해 9월 K-1 월드 GP 16강전 판정패에 이어 밴너와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쓴 잔을 들이켰다.

LIG '천적 사슬' 끊다

NH농협 프로배구 현대전 17연패 탈출

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가 겨울리그 3연패를 노리는 '천적'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상대로 2년 9개월간 이어졌던 정규리그 17연패 사슬을 끊었다.

LIG손해보험은 9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07~2008 V-리그 경기에서 올해 남자부 첫 '트리플 크라운'(백어택·블로킹·서브 득점 각 3개 이상)을 작성하며 혼자 38점을 사냥한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팔라스카를 앞세워 현대캐피탈을 3-1로 제압했다. 팔라스카의 트리플 크라운은 올 시즌 1호이자 통산 12호다. 대전에서는 삼성화재가 21점을 뽑은 라이트 장병철의 활약에 힘입어 상무를 3-1로 물리치고 쾌조의 3연승 행진으로 선두를 질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입단 파문' 김요한 LIG 합류

남자 프로배구 LIG손해보험 그레이터스 입단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광주전자공고 출신 '차세대 거포' 김요한(22·인하대 졸업 예정)이 드디어 선수단에 합류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LIG손해보험 지명을 받았던 김요한은 9일 오후 V-리그 LIG손해보험-현대캐피탈 경기가 열린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을 찾아 구단 관계자 등에게 인사한 뒤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했다.

아직 정식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아 벤치에 앉지 못했을 뿐 LIG손해보험 합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LIG손해보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본 김요한은 "언제 계약 문제가 해결될 지 모르겠지만 잘 풀어보려고 우선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중계

10일(월)

▲2007 PGA 메릴린치 슛아웃 FR(05 : 00·SBS스포츠·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금호생명〉(18 : 50·SBS스포츠)

11일(화)

▲07/08 NFL〈뉴올리언스 : 애틀랜타〉(10 : 30·SBS스포츠)

▲NH농협 07/08 V리그 남자부〈한국전력 : 삼성화재〉(16 : 00·KBS N SPORT)